

北韓學界에서의 丁茶山 研究*

李 光 麟

- | |
|---|
| I. 緒 言
II. 實學과 丁茶山 研究 概觀
III. 論文集『정다산』의 內容
IV. 論文集『정다산』의 문제점
V. 結 語 |
|---|

I. 緒 言

最近 大韓民國 學界에서는 實學者에 대한 研究가 盛況을 이루고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리고 實學者 中の 代表的 人物이라 할 수 있는 茶山 丁若鏞(1762-1836)에 대한 研究도 活潑하여, 그 동안 茶山에 대해서만 420여편의 論文이 씌여졌다는 사실¹⁾ 그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동시에 1978년부터 『茶山學報』, 1970년에 『與猶堂全書』 複刊本, 1974년에 그 補遺篇, 1984년에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收藏되어 있는 『俟菴先生年譜』를 刊行하였고²⁾, 또 研究書籍으로 『茶山詩選』³⁾, 『茶

* 본 연구는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것임.

1) 池斗煥, 「實學關係研究論著目錄」, 『秦東古典研究』 3 (秦東書舍, 1987)

2) 『茶山學報』는 景仁文化社에서 1978년부터 刊行되어 1989년까지 11輯이 나왔고 『與猶堂全書』 複刊本 6卷, 補遺篇 3卷, 또 『俟菴先生年譜』 1卷도 역시 景仁文化社에서 刊行되었다. 『與猶堂全書』는 1934년에 78卷으로 安在鴻·鄭寅普 등이 校閱하여 新朝鮮社에서 刊行된 것이었다.

3) 宋載邵 著, 創作과批評社, 1981.

山散文選』⁴⁾, 『牧民心書』譯註⁵⁾, 『茶山學의 理解』, 『茶山研究의 現況』⁶⁾, 『丁茶山과 그 時代』⁷⁾를 發刊하였다.

이에 대해 北韓學界는 어떠하였던가? 다시 말하면, 丁茶山에 대한 研究는 언제부터 일기 시작하고 또 그 成果는 어떠하였는지? 本稿는 이에 대한 것을 살피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물론 筆者는 北韓學界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여 살살히 살필 수 없는 형편이나 그 일부를 통해서나마 研究의 趨勢만이라도 살펴볼까 한다.

II. 實學과 丁茶山 研究 概觀

北韓學界가 가장 活潑하게 活動한 時期는 1955년부터 1966년까지 12년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科學院 歷史研究所에서 刊行한 學術雜誌 『력사과학』을 1955년 1월부터 刊行하기 시작하여 첫 해는 매달, 다음 해부터는 1년에 6회씩 刊行하였으나 1967년에 이르러 休刊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1978년부터 그것은 續刊되고 있으나 季刊誌로, 즉 1년에 4회씩 刊行하고 있고 또 休刊하기 以前보다 質적으로 많이 低下되어 있다. 어찌해서 도중에 休刊하고 또 질이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 그 동안 思想鬭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앞의 시대에는 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으나 休刊된 이

4) 朴錫武 著, 創作과批評社, 1985.

5) 茶山研究會에서 5卷으로 完譯되었다. 創作과批評社에서는 그 첫제권을 1979년, 마지막권을 1985년에 刊行하였다. 그리고 李乙浩에 의해 1974년 玄岩社에서 『茶山學의 理解』, 千寬宇에 의해 그 해 新丘文化社에서 『朝鮮實學의 開拓者 10人』 다음 해, 즉 1975년에 全南大學校 出版部에서 『實學論叢』이 刊行되었다.

6) 民音社, 1985년.

7) 民音社, 1986년.

후에는 金日成 唯一思想, 혹은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世襲을 公式의 으로 承認해야 되는 處지에서 많은 學者들이 肅清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一線에서 물러나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丁茶山 研究도 北韓學界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 즉 『역사과학』이 休刊되기 以前을 다루고자 한다. 이 시기에 『정다산』이란 單行本도 刊行되어 北韓學界가 지향하였던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선 北韓學界에서 實學, 혹은 實學者에 대한 연구를 보면 韓國動亂이 일어나기 전, 즉 『역사제문제』 1948년 2輯에 朴時亨이 「실학자 유형원의 정치개혁론」을 발표한 것이 그 첫번째가 아닌가 한다. 朴時亨은 1945년 12월에 越北하여 1947년 金日成大學이 설립되면서 教授로 就任하고 歷史學部長으로 임명되었던 人物이었다.⁸⁾ 그의 발표가 있었으나 그때까지 北韓學界는 아직 思想統一을 이루지 못한 때여서 그의 論文은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것 같다.

實學研究가 本格化 된 것은 1952년 12월 15일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 5次 全員委員會 席上에서 內閣 首相 金日成이 다음과 같이 진술함으로써였다. 즉 그는 “우리 선조들이 싸놓은 역사나 지리나 군사, 정치, 문화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견지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일부 지각 없는 문화인들이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치우는 아주 용서 못할 엄중한 결함”과 “앞으로 견결(堅決)히 투쟁하여야” 하겠다고 지시한 다음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8) 拙稿, 「北韓의 歷史學」 『東亞研究』 16輯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所收.

옹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⁹⁾ 그러니까 1952년 12월에 이르러서 사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實學에 대한 研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력사과학』이란 學術雜誌가 처음 발간된 해인 1955년 4호에 申龜鉉의 「연암 박지원의 사상체계」를 掲載하였고, 單行本으로 김하영의 「연암 박지원」과 윤세평의 「朴燕巖先生」 등 두 권이 刊行되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실학파의 토지개혁사상』이란 單行本도 刊行되었다. 또 『력사과학』 1952년 2호에 鄭鎭石이 「서경덕의 철학사상 - 서경덕 탄생 250주년에 제하여」, 同 5호에 손영종이 「홍대용의 선진적 사상에 대하여」, 1960년 6호에 백원규가 「실학파의 자연과학사상에 대하여」, 1961년 2호에 이창화가 「리물곡의 교육사상」, 同 4호에 鄭聖哲의 「조선이 낳은 탁월한 유물론 철학가 - 서경덕」, 『문화유산』 1961년 5호에 전장석이 「연암 박지원이 남긴 조선 민속학의 고귀한 유산」, 『력사과학』 1961년 6호에 鄭聖哲이 「임성주의 철학사상-임성주 탄생 250주년에 제하여」를 발표하였다.

사실 1960년 4월 鄭鎭石, 鄭聖哲, 金昌元이 共同으로 著述한 『조선 철학사』 上卷이 刊行됨으로써 北韓學界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露骨的으로 드러내 주고 있었다. 즉, 朝鮮哲學史는 古朝鮮, 三國時代, 新羅, 高麗, 朝鮮 그리고 20세기 초 마르크스-레닌주의 哲學이 전파되기 이전까지를 체계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력사과학』 書評에서도

《조선철학사》(상)은 기원전 3세기 경의 고조선 철학 사상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 전파되기 이전까지 유구하고도 풍부한 조선 철학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분석 서술한 첫 조선 철학 통사이다....(下略)¹⁰⁾

9) 崔益翰, 『實學派와 丁茶山』(한마당, 서울, 1989) 序文 參照.

라고 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理氣에 있어서 氣를 唯物論으로 看做하여 氣를 주장한 學說만을 취급하고 있다. 哲學史에 있어서 氣만을 취급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觀念論에 속하는 문제도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疑問을 던지는 學者가 있었으니 이는 一理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上略) 唯物論과 觀念論을 아는 것 만으로 哲學研究의 使命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루소는 觀念論者였으나 18세기의 프랑스 唯物論보다도 偉大한 激動을 프랑스大革命에 주지 않았던가? 어찌 해서 마르크스나 레닌도 「라이프넛지」와 같은 唯心論者를 높이 評價하였던가?.....(下略)11)

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편 사람은 日本人 學者였다. 그는 社會主義者로 北韓에 招請되어 갔던 사람이었으니, 마땅히 北韓學界를 좋게 보아야 되는 처지에 있었다. 그가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北韓學界에서 韓國哲學을 수립한 사람은 鄭鎭石이었다. 그는 1948년에 越北하여 金日成대학의 教授로 있었고 1953년 송도정치경제대학의 學長에 任命되었으나 1962년 10월 과학원 산하 철학연구소 所長으로 옮겼고, 1963년 3월 『로동신문』 副主筆, 그 해 6월과 1965년 두차례에 걸쳐 國際科學者會議에 北韓代表로 참가하였던 理論家였다.12) 그는 앞에서 소개한 徐敬德에 대한 研究뿐만 아니라 『력사과

10) 『력사과학』 1961년 5호, 리지호, 《조선철학사》(상)에 대하여.

11) 玉井 茂, 「朝鮮의 哲學에 대하여 - <朝鮮哲學史>의 紹介를 中心으로」 『朝鮮研究』 28, 29 合併號 (日本 朝鮮研究所, 1954).

12) 『北韓人物辭典』 (中央日報社, 1990) 參照.

학』 1959년 4호에 「조선 계몽기의 철학사상」을發表하여 韓國哲學을 體系化하려고 노력하였다. 啓蒙期라면 19世紀 후반기를 가리켰다. 1964년 鄭鎭石은 또 『조선 윤리사상사』를 著述하였다.

한편 哲學과 관련하여 과학원 역사연구소와 철학연구소가 共同으로 編纂한 『조선철학사』를 1958년에 刊行하였고 또 1963년부터 『철학연구』라는 學術雜誌를 發刊하였다. 이 雜誌에도 實學에 대해 많은 論文을 게재하고 있으니 이를테면 1963년 2호에 류정수가 「리수광의 철학사상」, 리용태가 「리수광의 자연과학사상」, 1965년 1호에 정성철이 「리규경의 철학사상 및 사회정치적 견해」, 1965년 5, 6호에 김사육이 「안정복의 역사관과 그의 조국력사 편찬에 대하여」, 1967년 1호에 리용태가 「연암 박지원의 자연관」 등을 掲載하였던 것이다.

김일성대학 역사연구소에서도 「조선의 명인」이라는 책을 1962년 11월에 刊行하였다. 그 속에서 鄭鎭石이 「리이」, 김사육이 「리수광」, 홍기문이 「안정복」, 김광진이 「박제가」, 김용준이 「김홍도」에 대해 쓰고 있다. 과학원 산하 고전연구소에서도 實學의 重要文獻을 翻譯 發刊하였다. 즉, 柳馨遠의 『반계수록』, 朴趾源의 『연암집』과 『과농소초』, 李瀾의 『성호사설』, 洪大容의 『담헌서』, 安鼎福의 『동사강목』, 李肯翊의 『연려실기술』, 이수광의 『지봉유설』, 權文海의 『대동운부군옥』 등이 翻譯되었다. 1970년 이후에도 研究를 계속하고 있으나 그 以前과는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비교가 될 수 없다. 單行本으로 1974년 鄭聖哲이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경제적 견해』, 그리고 1975년 『조선철학사상연구』와 1986년 『조선철학사개요』를 刊行하였으며, 논문으로 『력사과학』 1981년 4호에 朴時亨이 「우리나라 실학유산에 대한 연구 - 실학자들의 군사개혁론을 중심으로」, 1987년 3호에 실린 허륜이 「우리나라 실학 발전에서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차지하는 위치」등을 執筆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것으로 實學研究의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北韓學界에서 丁茶山에 대한 研究를 보면, 맨 먼저 研究書를 펴낸 이는 崔益翰이 아닌가 한다. 그는 1955년 『실학과와 정다산』을 刊行하였다. 그는 日帝時代 東亞日報社의 論說委員으로 근무할 때인 1938년 12월 9일에서 1939년 6월 4일까지 「與猶堂全書를 讀함」이란 글을 65회에 걸쳐 집필하였고 이것이 上臺가 되어 책의 일부를 이루었던 것 같다. 즉, 崔益翰은 『東亞日報』에 실린 것을 「실학의 대성자 정다산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의 下篇으로 삼고 「실학과의 사적발전」이라는 글을 첨가하여 책의 上篇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책은 上下 2篇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¹³⁾

그러나 이렇게 刊行된 崔益翰의 책은 北韓學界에서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 뒤에 나온 다른 학자들의 論文이나 著書 중에 崔益翰이 著述한 책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崔益翰은 1955년까지도 健在하였던 모양으로 여러 편의 글을 쓰고 있다. 이를테면, 『력사과학』 1955년 1호에 「조선문학과 한문문학」, 12호에 「연암 박지원의 사상적 급 문학적 지위 - 그의 사거 150주년을 기념하여」라는 논문을 쓰고 있다. 그는 1948년 南北協商 때 越北하여 金日成大學 教授로 在職하면서 『역사제문제』라는 雜誌에 4篇의 글을 發表하였다. 즉,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의 재고찰」(6집, 1949), 「조선 유교사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상)(12집, 1949), 「조선 유교사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하)(14집, 1949), 「고대 조선문화와 유교와의 관계」(4집, 1950)가 그것이다. 따라서 韓國動亂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55년까지에도 崔益翰은 北韓學界에서 認定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丁茶

13) 『實學派와 丁茶山』, 「책머리」參照.

山에 대해 著述한 책은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實學에 대한 評價의 方向과 原則이 달라지면서 崔益翰의 책이 비판을 받게 되고 또 公式의으로 修正해야만 되지 않았던가 한다. 즉, 朝鮮 後期社會의 內在的 發展과 農民抗爭을 다룬 研究成果들이 나타나면서 崔益翰이 강조한 實學의 時代的 環境이 달리 파악되고 大衆의 力動性이 浮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主體思想의 定立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1969년 김일성이 實學派와 그들이 주장한 여러 견해를 主體的 立場에서 바르게 評價하라고 敎示를 내렸던 것이므로 모든 것을 새롭게 研究해야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¹⁴⁾

이처럼 研究의 性向이 바뀐 뒤를 보면 『력사과학』 1955년 7호에 리형일이 「정다산의 철학사상」, 1956년 3호 卷頭言에 「정다산의 생애와 학설 - 다산 정약용 서거 120주년에 제하여」가 게재되었다. 리형일은 그의 論文에서 “그(丁茶山)의 철학은 아직 유학의 관념론적 사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유물론적 색채로써 일관되어 있다. 그는 조선<고전 철학>을 종말시킴으로써 새로운 철학 발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의 이와같은 사상은 19세기 계몽학자들의 반봉건적 계몽사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상적 원천으로 되었다”고 하여 丁茶山의 哲學思想을 높이 評價하였다. 다음으로 「정다산의 생애와 학설 - 다산 정약용 서거 120주년에 제하여」라는 글에서 丁茶山이 이룩한 事業을 일일이 擧論한 뒤 “우리는 정다산의 고귀한 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방법론으로 심오하게 연구하여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사업을 계통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이며 정다산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이 우리 전체 인민의 재산으로 되며 자유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선진적 평화에

14) 同上.

호 인민들의 공동적인 재산으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의의 깊은 그의 서거 120주년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丁茶山에 대한 研究를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김증식이 『력사과학』 1962년 4호에 「다산 정약용의 정치개혁론」을 발표하였고, 同 6호 「서평 및 서적해제」欄에 『목민심서』에 대한 解題를 실고 있다. 김증식은 그의 글 중에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우리나라 봉건사회 말기의 탁월한 민주주의적 사상가였으며 정론가였으며 과학자였다. 그는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하고 다방면적인 저작을 남겨 놓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유산 중에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下略)”고 쓴 다음에 丁茶山の 政治改革論을 논하였다. 아마도 丁茶山이 民主的인 思想家였고 正論家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한다.

한편 單行本으로 1962년 金洸鎭이 『정다산의 경제사상』을 펴냈으며, 과학원 산하 고전연구소에서도 그 해, 즉, 1962년 茶山이 著述한 『대동수경』, 『경세유표』, 『목민심서』를 翻譯・刊行하였다. 전술한 바와같이 『력사과학』에 『목민심서』에 대한 解題를 掲載한 것은 고전연구소에서 그것을 翻譯하여 刊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해에 조선 고전 문학전집 간행회에서도 『정약용 작품 선집』을 펴냈으니 그것은 劃期的인 일이었다.

III. 論文集 『정다산』의 內容

1962년 7월 31일 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426면에 달하는 『정다산』이란 論文集을 刊行하였다. 여기에는 8編의 論文과 附錄으로 「다산 정

약용의 주요 저작 연표」와 「여유당전서총목록」이 실려 있다. 실은 이 책이 出刊되면서 丁茶山 誕生 200주년 紀念 學術報告會가 開催되었는데 철학연구소 소장 鄭鎭石이 「정다산의 철학사상」, 경제·법학연구소 所長 金洸鎭이 「정다산의 경제사상」, 物理學 학사 리용태가 「정다산의 자연과학사상」, 申龜鉉 副教授가 「정다산의 문학관」을 發表하였다. 同時에 8월 4일에는 다산 탄생 200주년 기념보고회가 개최되어 정진석 司會하에 과학원 사회과학 부문 위원회 위원장 金錫亨의 發表가 있었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평양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산탄생 200주년을 기리는 기념 전람회가 6개실에서 열렸다.¹⁵⁾

『정다산』이란 책이 철학연구소에서 刊行되었는데 이것은 2년전인 1960년 4월에 나온 『조선철학사』 上卷 속에 唯物論에 立脚하여 모든 것을 보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력사과학』誌에도 근간도서안내라 하여 『정다산』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이 기념 논문집에는 정다산의 생애와 활동을 비롯하여 그의 유물론적 철학사상....(中略) 등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논문들이 수록된다”고 써여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¹⁶⁾

철학연구소는 본시 역사연구소에 소속된 철학연구실로 1957년에 된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철학연구실에서는 『력사과학』 1957년 1호에 「철학연구실의 과업」이란 글을 싣고 哲學者에게 부과된 使命을 說明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물론 철학은 관념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투쟁속에서 단련되었으며 발전되었다. 철학사의 전 행정은 관념론과 유물론의 투쟁 과정이며 이 투쟁을 통하여 과학적·유물론적 세계관이 승리하는 행정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철학사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하여야 할 것은 유물론의 주도성을 잊지 않는 조건 하에서 광범

15) 『력사과학』, 1962년 5호에 실린 「학계소식」 참조.

16) 同上, 1962년 5호 참조.

히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고 끝으로 “우리 철학연구실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선 철학사의 체계를 확립하고 그 내용을 풍부히 정확하게 서술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한 두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많은 철학가들과 역사가, 경제학자 등등의 집체적 역량을 동원하여야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唯物論이나 韓國哲學의 理氣에 있어서 氣만을 唯物論으로 取扱하는 問題에 대하여 北韓學界는 철저하였다. 그러므로 『철학연구』誌 1965년 2호에서 류정수가 「조선철학사에서의 리·기문제에 관하여 - 16·18세기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다시 『철학연구』 1966년 1호에서 「조선철학사 연구에서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하여」라는 글을, 同誌 1966년 1호에 「조선철학사 연구에서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훨씬 뒤의 일이지만 1975년 최봉익이 『조선철학사상연구』라는 이름의 單行本을 펴내면서 「리조 전반기 철학사상」에는 「관념론의 발전과 그 반동성」이라 하여 「권근·리황·리이」에 대해 「관념론에 대항하는 투쟁」이라 하였고, 「김시습·서경덕」과 아울러 「리조 후반기」, 「관념론」이란 項目아래 禮論을 제창한 學者로 「송시열·기정진」을 서술하였고 「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이라 하여 「리수광·장유·박세당·임성주」를 舉論하여 說明하고 있다. 한편 「리조봉건말기 실학자들의 철학 및 사회·정치적 견해」라 하여 「리익·홍대용·박지원·정약용·리규경·최한기」의 哲學思想을 각기 說明하고 있다. 최봉익은 1986년 다시 『조선철학사개요』를 著述하여 위의 內容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철학연구』 1989년 3호에 류만석이 「15-16세기 우리나라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이란 論文을 發表하여 唯物論을 높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을 再 闡明하고 있다. 철학연구실이 研究所로 바뀐 것은 정진석이 1962년 송

도경제대학의 學長에서 철학연구소 所長으로 옮기면서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哲學史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哲學者들과 함께 歷史家, 經濟學者들이 共同으로 研究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정다산』이란 책을 철학연구소에서 刊行하면서도 歷史家和 經濟學者들의 協助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정다산』이란 論文集 8編의 論文 가운데 제일 먼저 歷史家 김석형이 쓴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이 들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論文에서 김석형은 茶山의 修學時期, 벼슬하던 時期, 苦難의 流配生活 時期, 晩年の 著作生活 時期 등 넷으로 구분하여 每 時期의 특징을 밝히고, 그의 活動을 상세히 敘述하였다. 그리고 科學文化 遺産과 先行 實學者들의 思想과 學問을 集大成한 丁茶山의 功績을 높이 評價하였다.

다음으로 정진석의 論文 「다산 정약용의 철학사상」에 대해 살펴보면 丁茶山의 哲學的 및 社會政治的 思想은 實學에서 胚胎되었다고 하고 實學의 基本特徵으로 朱子學의 空理空談에 대한 批判, 自然科學 遺産의 受容, 進歩的 政治經濟學的인 改革案의 提示, 그리고 自主精神 등을 說明하고, 아울러 唯物論을 繼承·發展시켜 獨自인 哲學體系를 樹立한 人物이라고 評하였다. 論文集을 철학연구소에서 刊行하였던만큼 정진석의 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經濟學者 김광진이 쓴 「다산 정약용의 사회·경제사상」은 朝鮮後期 土地制度의 紊亂과 不合理함을 分析하고 改革案이 經濟思想史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說明하였다. 그리고 當時의 土地制度에 대한 批判과 丁茶山이 제시한 租稅制度和 商業·貨幣流通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물리학자 리용태가 쓴 「다산 정약용의 자연과학 사상」은 唯物論的

宇宙觀에 立脚하여 天文學·氣象學·光學·地理學·生物學·化學 등에 대해 說明하고 당시의 迷信과 宗教的 見解를 批判하였다. 또 丁茶山이 種痘法과 각종 技術을 實施한 것에 대해서도 說明하고 있다.

신구현이 쓴 「다산 정약용의 창작과 문학적 견해」에서는 丁茶山이 2천 수백편의 詩를 비롯한 散文, 傳記, 論說 등을 著述하고 創作의 思想性과 藝術性, 그리고 創作方法의 優秀性 등을 논하였다. 한편 丁茶山의 創作活動을 4期로 區分하고 각 時期의 愛國思想, 農民에 대한 사랑과 同情, 統治階級들의 苛斂誅求 등을 논하였으며 丁茶山의 文學에는 寫實主義的 見解도 있고 앞선 時期의 文學家들과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朴時亨이 쓴 「다산 정약용의 력사觀」에 있어서 社會發展의 원동력에 대한 견해, 그리고 國家와 國民間의 關係 등을 논하고 아울러 丁茶山이 가졌던 韓國歷史에 대한 理解 등을 資料를 통해 살피고 있다.

정학도가 쓴 「다산 정약용의 조선어 연구」에서는 丁茶山이 朝鮮語를 어떻게 研究하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풍부한 資料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끝으로 教育學 學士 박형성이 쓴 「다산 정약용의 敎育사상」에서는 人間의 個性과 社會發展에 있어서의 敎育의 役割 그리고 敎育의 目的과 內容, 敎授方法과 學習, 道德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상으로 『정다산』에 들어 있는 8編의 論文을 紹介하였다. 또 책 앞에는 갓을 쓰고있는 茶山의 肖像畫과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면서」라고 쓴 序文이 실려 있다. 그 序文에서

(上略) 18세기 말 조선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백과전서적 대학자이며 작가인 열렬한 애국자 정약용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가 사상, 이론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들을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下略)

라고 하여 丁茶山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이처럼 北韓學界에서 丁茶山을 여러 면으로 研究하여 單行本을 刊行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다. 당시 大韓民國에서 홍이섭이 單行本으로 『經世遺表』만을 分析하여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 研究』¹⁷⁾라는 책을 펴낸 것과는 대조가 되었다.

IV. 論文集 『정다산』의 문제점

『정다산』이란 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이 읽기 쉽다. 그리고 研究의 水準을 한층 높이고 있어 크게 評價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研究가 되어 있지 않은 처지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지만 또한 너무나 獨善的이고 偏頗的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김석형의 論文에서 僻派는 大地主, 時派는 小地主로 써여 있다. 이를테면

(上略)이미 오래전부터 王政의 《여당》으로 되어 있었고 정조 초년에 벽파로서 한풀 꺾이기는 하였으나 차차 은연 중에 세력을 만회하고 있었던 노론 계통과 다음으로 소론 계통의 량반 관료들이 결국 이러한 대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싸움에 나섰던 두목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한 토지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별문제다. 그들이 반대하고 모함하던 남인 계통

17) 韓國研究院, 1959.

의 관료들과 특히 다산과 같은 실학과 학자들은 대체로 중소 지주계층이었다. 정조왕이 일련의 긍정적 시책들을 시도하면서 이들에게 호의를 표시하고 이들에게 의거하려고 하였던 것은 우연치 않다.....(下略)

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확실한 資料를 갖고 썼는지 묻고 싶다. 그렇게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쓴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田論에 대한 글은 康津에 流配된 뒤에 쓴 것처럼 되어 있다. 그것은 「유배시의 다산, 실학사상의 심화발전」이란 項目 하에 田論에 대해 說明하고 있고 또 그의 글 중에

(上略) 이미 널리 소개된 閭田制(閭田制)의 사상에 도달한 것은 저러한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적 사상과 함께 유배생활 18년간 정력적인 연구과정에서 맺은 가장 고귀한 열매였다.....(下略)

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閭田制에 대한 글은 田論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奎章閣 圖書 속에 들어 있는 『與猶堂集』 28책에 田論에는, 「此是 己未間 所作 三十八歲時 與晚來所論不同 今亦錄之.....(下略)」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丁茶山이 38세 때인 己未, 즉 正祖 23년에 이 글을 쓴 것이고 晩年の 主張과는 다르나 지금 여기에 收錄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田論을 康津 流配時에 썼다면 奎章閣에 들어 있는 『與猶堂集』의 글을 어떻게 解釋해야 될런지 묻고 싶다. 그리고 김석형은 『강진읍지』 중 名僧 欄에 草衣傳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초의(草衣)는 丁茶山의 시우(詩友)일 뿐만 아니라 도교(道交)였다. 다산이 류배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경세유표》

를 밀실(密室)에서 저작하여 그 문생 리청(李晴)과 친승 초의에게 주어서 비밀리 보관 전포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 전문(全文)은 중간에 류실되었고 그 일부가 그 후 대원군에게 박해를 당한 남상교(南尙敎), 남종삼(南鍾三) 부자 및 홍봉주(洪鳳周) 일파에게 전하여졌으며 그 일부는 그후 강진의 윤세환(尹世煥), 윤세현(尹世顯), 김병태(金炳泰), 강운백(姜雲伯) 등과 해남의 주정호(朱挺浩), 김도일(金道一) 등을 통하여 갑오년에 기병한 전록두(全綠豆-전봉준의 별명...필자), 김개남(金介南) 일파의 수중에 들어가서 그들이 리용하였다. 전쟁 끝에 丁茶山 비결(秘訣) - 《經世遺表》와 같은 책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 - 필자)이 룩두 일파의 비적(갑오농민 폭동군을 가리킴)을 선동하였다고 하여 정다산의 류배지 부근의 량가(良家)들과 고성사(高聲寺), 백련사(白蓮寺), 대둔사(大菴寺) 등 사찰을 수색한 일까지 있었다.)

고 하고 있듯이 丁茶山이 康津을 떠날 때 『經世遺表』의 일부를 草衣 등에게 준 것이 1894년의 東學農民運動의 指導者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언제 刊行된 『康津邑誌』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알고 싶다. 北韓學界에서는 文獻의 出處와 刊行年度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어 잘 알 수가 없다.

다음으로 정진석의 論文을 살펴보면 그의 글 중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그의 哲學에는 허다한 계급적 및 이론적 제한성이 있으나 그의 유물론적 철학적 견해와 진보적 사회정치적 견해는 조선 철학발전에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고 하여 丁茶山의 哲學에는 唯物論적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丁茶山이 畿湖學派의 栗谷(李珥)을 따라 主氣論을 主張하였다고 쓰면 되는 것을 하필 唯物論만을 고집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까닭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實學思想家들이 共通的 學問的 特徵으로 몇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둘째 특징은 실학 사상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연과학 유산들을 충분히 연구 체득한 기초 위에서, 당시 소개된 구라파의 선진적 자연과학과 기술지식을 대담히 연구·도입한 것이다. 그들은 천문학, 물리학 및 기타 새로운 자연과학의 사상에 기초하여 유교적 세계관에서 해방되어 갔으며 유물론적 세계관 확립에도 접근하였다. 또한 그들은 선진적 과학지식에 기초하여 자기들의 학문의 과학적 수준을 제고하였다.

고 한 다음 「送李參判使燕京序」에 들어 있는 글을 翻譯하여 신고 있다. 이 글에는 文益漸이 목화씨를 가져온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로 위의 引用文처럼 西洋科學과 技術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儒敎的 世界觀을 解放시켰다고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文句도 보인다.

대체로 실학파의 사상가들은 대개 복학을 주장하였는 바 그것은 낙후한 조국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자각이었으며 당시로서는 거대한 진보적 의의를 가졌다.

고 하여 대부분의 實學者들이 北學派에 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北學派라면 實學者의 일부, 즉 朴趾源(號 燕巖)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大部分의 實學者들이 北學派에 속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김광진·리용태·신구현·정학모·박형성의 글은 필자가 공부하는 분야와 다르므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끝으로 朴時亨의 글에서

다산의 이러한 학설을 단지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확실히 복고주의의 일종이다. 사실 또 다산은 이러한 학설을 《론어》의 《백세가지》와 관련시켜서만 피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곳들에서도 같은 논조를 취하였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500여권의 다산의 방대한 저서들 중에서 태반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교경전들의 주석서인데 이 많은 주석들에서와 기타에서는 상기 사상이 도처에서 서술되었다.

고 쓴 다음에

단적으로 말하여 장라는 확실히 동일한 사상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전자는 다산의 진심을 토로한 것이요 후자는 그 진심을 우회적인 말로써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산이 처한 시대, 그의 개인적 경력은 그로 하여금 항상 자유로운 사람으로써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위에서 前者란 茶山의 생각을 나타낸 글이었고 後者란 茶山이 儒敎經典에 註釋을 붙이면서 나타내었던 復古主義의인 態度였다. 그러나 위의 글을 읽으면서 朴時亨이 茶山의 思想을 얼마만큼 제대로 解釋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다음과 같은 句節을 발견하게 된다.

고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다산의 학풍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실례로서는 그가 고조선이 최초부터 건잡을 수 없이 광막한 《령토》를 가진 초대국이었으리라고 하는 당시 일부 사람들의 환상을 배제하고 고조선도 역시 처음에는 일정한 좁은 지역(다산은 그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서북부라고 생각하였다)에서 출발하여 점차 광대해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사실이다.[《自始朝鮮 其疆域未必曠遠 後世拓地舊郭》(我邦疆域考 朝鮮考)]

라고 하고 있다. 이 引用文은 北韓學界에서 古朝鮮을 滿洲 遼河 附近에 있었다는 說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一致하지 않는다.¹⁸⁾ 朴時亨이 이러한 主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V. 結 語

이상으로 北韓學界에서의 丁茶山 研究를 살펴보았다. 특히 1962년 7월에 刊行된 『정다산』이란 論文集의 一部를 檢討하여 그 問題點도 살폈다. 論文集 『정다산』이 刊行된 時期는 北韓學界가 가장 활발하게 活動하였던 때였다. 그러나 『정다산』에 들어 있는 8편의 論文에는 모두 論旨가 같아 앵무새처럼 똑같은 主張을 하고 있고 제멋대로 論理를 펴고 있다. 같은 主張을 하는 것 중에는 丁茶山이 徐敬德·李珣과 같은 學者들의 唯物論 哲學을 繼承하였는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學問 研究에 있어서 똑같은 主張을 편다는 것은 그 社會가 얼마나 硬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大韓民國 學界가 統一된 見解를 갖고 있지 못한데 비해 똑같은 主張을 펴게 되면 읽는 이들에게 쉽게 理解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正常的인 것이 못된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大韓民國의 어떤 出版社에서 북한과 학원 철학연구소에서 펴낸 『정다산』을 刊行한 것을 보아서이다. 말하자면 그 책이 잘 되었다고 믿고 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18) 拙稿, 「北韓學界에서의 古朝鮮研究」, 『歷史學報』124輯(1989年 12月刊) 所收.